

HANYANG UNIVERSITY
INTERNATIONAL FOUNDATION

NEWS

LETTER

2020 Vol. 01

국제재단

모교와 후배들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한양대 국제재단의 이사회를 만나보세요.

방방특특

굴하지 않는 용기,
주저하지 말고 끝까지 해내라.

글로벌 한양

끝없는 도전과 열정의 한양인!
새로운 글로벌 시대의 주인공이 되다.

기부안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최고의 대학.
사랑의 실천에 동참해 주세요.

THE BEST *for a*
BETTER WORLD
HANYANG UNIVERSITY

THE BEST for a
BETTER WORLD
HANYANG UNIVERSITY

CISION
Congratulations!
Hanyang
University's 80th
anniversary.

The Engine
of Korea,
HANYANG
UNIVERSITY
The Best for a Better World

한양 80주년을 알리는
뉴욕 타임스퀘어,
로이터 스크린 광고

세계로 울리는 한양의 포효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서
80년 혁신을 이끌어 온 한양대학교!

이제 한양의 인재가 대한민국을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합니다.

혁신의 울림 **한양대학교**

The Engine of Korea
HANYANG UNIVERSITY



대한민국 성장동력
한양대학교



Vol. 01

한양대학교 국제재단이 만들어가는 뉴스레터

CONTENTS

한양대학교 국제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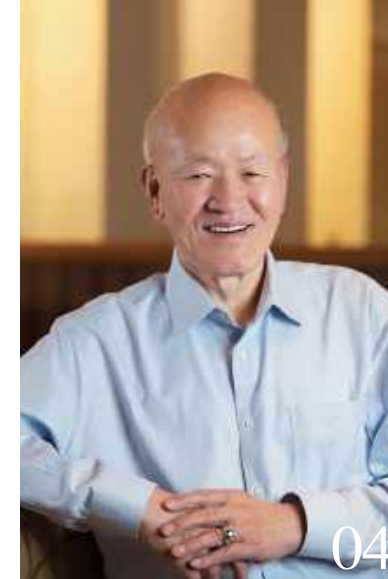
- 04 이사장 인사말 사랑을 실천합니다
- 05 총장 축하 메시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최고의 대학!
- 06 국제재단 이사회 안녕하세요,
우리는 한양국제재단 이사회입니다
- 08 국제재단 소개 국제재단을 소개합니다
협력 동문회
- 10 국제재단 정기총회 사랑의 실천을 향한 첫걸음
한양국제재단, 첫 번째 모임을 갖다

동문 네트워크

- 13 방방톡톡 굴하지 않는 용기,
주저하지 말고 끝까지 해내라
- 17 글로벌 한양 끝없는 도전과 열정의 한양인
새로운 글로벌시대의 주인공이 되다
- 20 통계로 보는 한양 사랑의 실천을 향한 첫걸음

사랑의 실천

- 22 발전 기금 안내 한양을 키우는 명예, 미래를 만드는 자부심
한양이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힘이 됩니다
- 26 2019 기부금 현황 세상을 바꾸는 사랑의 실천
- 27 기부 안내 한양대학교와 후배들을 위한 투자



04



05



10



13



22

발행일 2020년 상반기(통권 1호) | 발행인 이종혁 | 발행처 한양대학교 국제재단 사무국(369 13th St. Oakland, CA 94612)
디자인 · 인쇄 상상 02-548-3835 | 구독 · 주소 변경 info@hanyangfoundation.com

사랑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 동문 가족 여러분.

한양대학교 국제재단의 초대 이사장을 맡게 된 건축공학 58학번 이종혁입니다. 서면으로나마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1939년 동아공과학원에서부터 지금의 명문 한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우리 한양 동문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최고 명문 대학을 넘어 글로벌 100대 대학 진입을 목표로 비상하고 있는 우리 모교 한양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지난 2019년에 국제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미국에 있지만, 청춘의 꿈과 땀으로 가득 찼었던 우리의 모교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작지만 힘을 보탬 수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가슴이 뛰고 설렙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소식지를 발간하게 되니,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앞으로 우리의 소식지가 기분 좋은 소식으로 가득 채워져, 미주에 계시는 동문 가족에게도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전하는 사랑의 소식지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제 삶의 기준이자 모토가 된 한양의 건학 이념인 “사랑의 실천”을 한양대학교 국제재단을 통해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타지에서 보내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한양대학교의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미주 전역의 동문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어, 미주의 한양인과 동문회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눈부시게 빛나는 우리 한양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대학교 국제재단 이사장 **이종혁**(건축공학 58)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최고의 대학!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제 15대 총장 김우승입니다.

2019년은 한양학원 설립자 김연준 선생께서 1939년 일제 강점기 치하에서 교육보국과 기술보국의 정신으로 한양학원을 설립하신지 80년이 되는 해입니다. 8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쉼 없이 달려온 한양대학교에 한양 가족의 구성원 중 한명으로서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피폐해진 경제를 일으키고자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통해 경제적인 성장을 이뤘을지는 모르지만 그 성장 이면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데는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사회 환경속에서도 우리 한양은 ‘사랑의 실천’이라는 건학 정신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를 넘어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되기 위한 길고 담대한 여정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한양의 발전에 함께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였습니다. 언제나 ‘한양’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 뛰는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한양의 구성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좋은 성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The best for a better world!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최고의 대학!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대학교 제 15대 총장 **김우승**



안녕하세요, 우리는 한양국제재단 이사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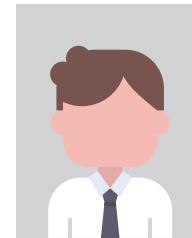
이찬희 부이사장 (건축공학과 73/뉴욕)

한양대학교 국제재단 발족을 축하합니다.



남영근 부이사장 (토목공학과 76/남가주)

세계를 품는 한양인의 계획 속엔,
연구와 탐구는 한양의 학생들이,
발전과 도약 준비는 총장님과 교수님들이,
그리고 후원과 밑거름은
역사와 전통의 한양 동문들이!



소병훈 이사 (원자력공학과 77/워싱턴)

국내 최고 대학을 넘어
세계 일류 대학으로 우뚝 서기를!



신한준 이사 (행정학과 86/남가주)

어떤 두려움과 좌절에도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한양의 이름으로 영원하길...



정성수 재무이사 (산업공학과 80/북가주)

별뜻없이 받아들였던 사랑의 실천,
이제는 그 큰 이상을 함께하고, 참여하여
사랑의 실천을 보여 줍시다!



엄태석 사무총장 (재료공학과 85/북가주)

세계를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가자 한양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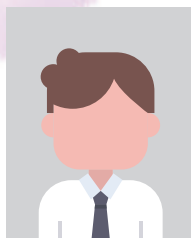
이강일 이사 (체육학과 82/북텍사스)

아름다운 동행으로
사랑의 실천을 널리 알려
세계 100대 대학으로 발전되기를...



이장한 이사 (화학공학과 61/뉴욕)

80여 년의 고고한 역사를 가진
한양대학교.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할 때가 왔습니다.
그 순간에 함께 할 수 있어서 큰 영광입니다.



국명호 이사 (화학공학과 67/뉴욕)

한양의 발전을 위해
동문들의 힘을 모읍시다!



김영기 이사 (기계공학과 63/워싱턴)

한양 국제재단이 모교가
세계 100대 대학으로 가는
주춧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창우 이사 (경영학과 83/남가주)

제 삶의 모토가 된 사랑의 실천!
이제는 후배를 위해 되돌려주는
동문이 되겠습니다.
한양 파이팅!



최명섭 이사 (체육학과 81/북텍사스)

자랑스러운 우리 모교와
한양인들을 위한 첫 걸음을
한양대 국제재단과 함께해 영광입니다.



남상신 이사 (산업공학과 67/북가주)

사랑의 실천으로
함께 걸어가는
영원한 한양인이 되자!



노상일 이사 (보험경영학과 89/GCEO)

한양국제재단 & 한양대학교
G-CEO 과정 go together



최명식 이사 (광산학과 61/뉴욕)

한양국제재단의 성공을 위해
우리 모두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We can do it!



황희준 당연직이사 (건축공학과 81/대외협력처)

한양국제재단의 설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교에서도 동문 선배님들의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고자 한양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재단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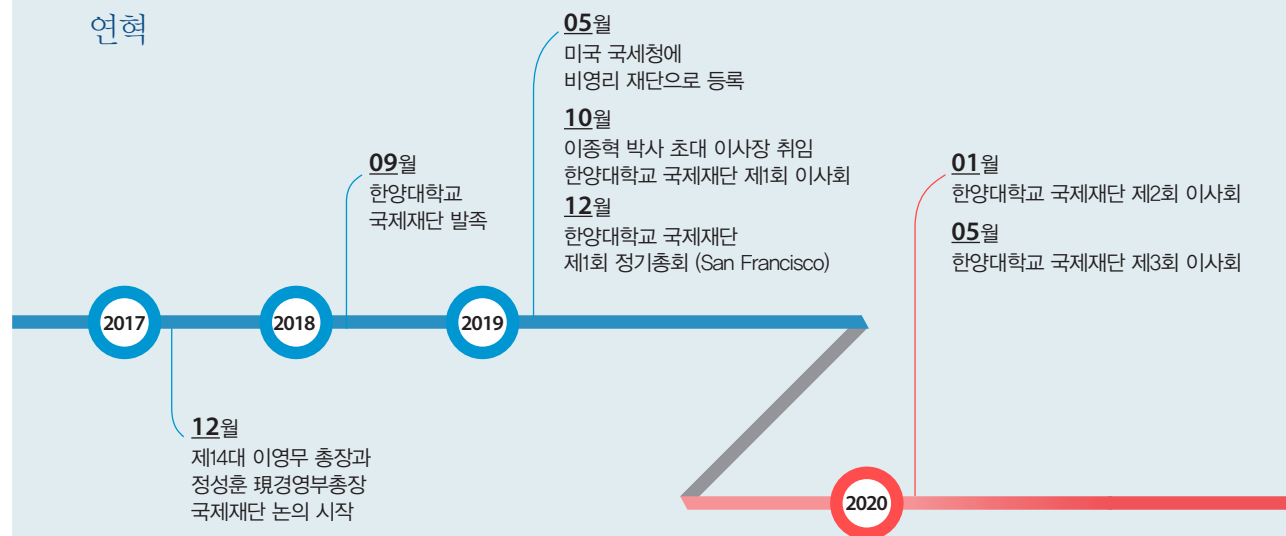
한양대학교 국제재단은

글로벌 100대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 도약하는 한양대학교의 발전에 함께하고자 하는 동문 및 일반인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입니다.

설립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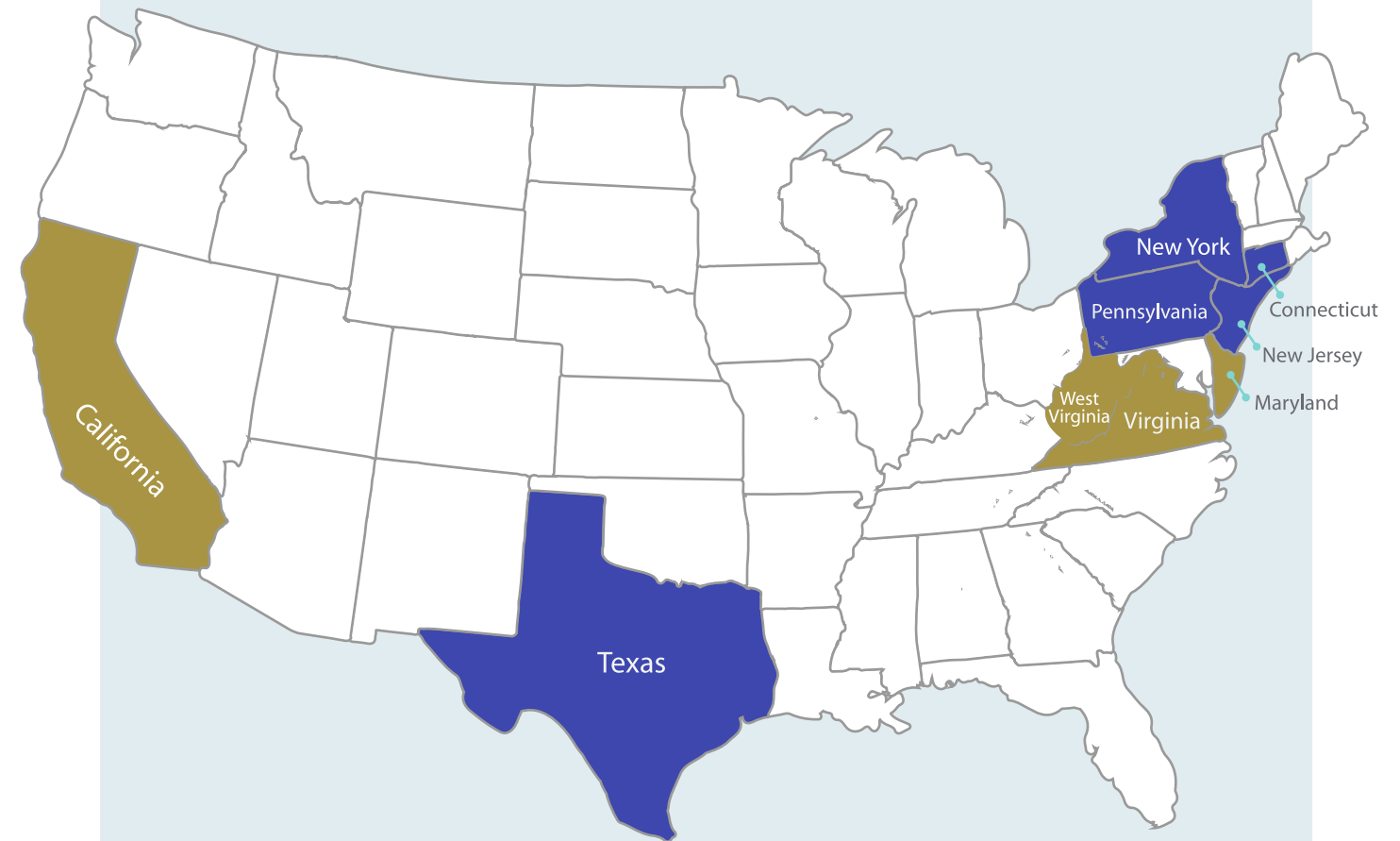
- 미주에 거주 중인 동문과 모교와의 교류 활성화
- 한양대학교의 성장과 도약을 지원
- 미주 지역 교환학생 및 유학생 장학금 지원
- 미주 지역 동문회 지원

연혁



협력 동문회

미주 전역의 동문들을 위해, 국제재단 본부를 중심으로 남가주, 뉴욕, 북가주, 북텍사스, 워싱턴 동문회와 긴밀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동문회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를 원하는 동문회에서는 재단 본부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info@hanyangfoundation.com | (510) 836-7400

※ 각 지역의 동문회를 후원하고 싶으신 동문께서는 재단을 통해 동문회를 후원하시면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을 향한 첫걸음

한양국제재단, 첫 번째 모임을 갖다

지난해 12월 1일, 북가주 한양대 동문회의 후원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한양국제재단의 첫 번째 정기총회가 열렸다. 김우승 총장님을 비롯한 국제재단 제1기 이사진 등 귀빈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모교와 후배들을 위한 그 첫걸음이 참 벅찼다.

한양대학교 국제재단의 설립

2019년 한양대학교 설립 80주년을 맞는 해에 캘리포니아주 오كل랜드에 본부를 두고 한양대학교 국제재단이 발족하였다. 한양대학교 국제재단의 설립은 미주에 거주하는 많은 동문들을 지원하고자, 동문과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한양대학교의 성장과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논의되어 왔다. 모교 발전에 동참하고 싶어도 세계 혜택을 받지 못했던 미주 지역 동문들을 위해 2019년 5월 미국 국제청에 비영리 재단 등록을 마치고, 한양대 국제재단은 본격적으로 동문들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국제재단 본부가 있는 북가주, 그리고 남가주, 뉴욕, 북텍사스, 워싱턴 동문회를 중심으로, 모교와 동문들을 위해 스스로 이사로 참여하신 동문회장들과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종혁 동문(건축공학과 58)은 그 첫걸음에 한마음으로 힘을 실었다.

한양대학교 국제재단 제1회 정기총회

2019년 12월 1일 일요일, 샌프란시스코 힐튼 호텔에서 국제재단의 첫 번째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번 정기총회는 한양대학교 김우승 총장과 각 주의 이사 그리고 동문들이 참석했다. 엄태석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대선배인 김용근 동문(기계공학과 52)의 환영사와 김우승 총장의 축사로 그 문을 열었다. 김우승 총장은 한양대학교가 2019년 대학평가에서 본교와 에리카 캠퍼스가 모두 10위 안에 포함되는 경사와 전 세계 동문들의 기부로 학교가 더욱 발전하고 있음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였다. 또한 신입생 유치 및 교육 방법 등 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경하거나 추가해야 할 사항과 학교가 나아갈 방향을 얘기했다. 이종혁 이사장은 2020년 재단의 사업 계획과 비전을 나누었고, 한 해 동안 기부한 동문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모교 사랑'은 한마음

우리는 국제재단이 발족 되자마자 미주 전역에서 모교의 발전과 후배를 향한 선배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다. 간호학과 후배들을 위한 작은 성의라며 곱게 써서 보내신 편지, 자랑스러운 한양 후배들을 위한다는 자신감 넘치는 선배의 면모를 보여준 편지, 자신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후배들이 공부하길 바란다는 응원이 담긴 편지,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달하신 발전 기금, 또 별말 없이 보낸 수표에 묻어나는 그 관심과 열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모교와 후배들의 발전에 함께하고자 발전기금 기부를 약속하기도 했다.



제1회 정기총회 중 이종혁 이사장의 설명을 들으며 국제재단 브로슈어를 살펴보고 있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귀빈들을 위해 국제재단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과 크리스마스 꽃 장식

엄태석 사무총장(북가주 한양대 동문회장)



한양대학교 국제재단의 제1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김우승 총장의 축사



북가주 동문회 고문단장 김용근 동문의 환영사

민혜경(식품영양학 72) 동문이 모교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이종혁 이사장이 감사장을 전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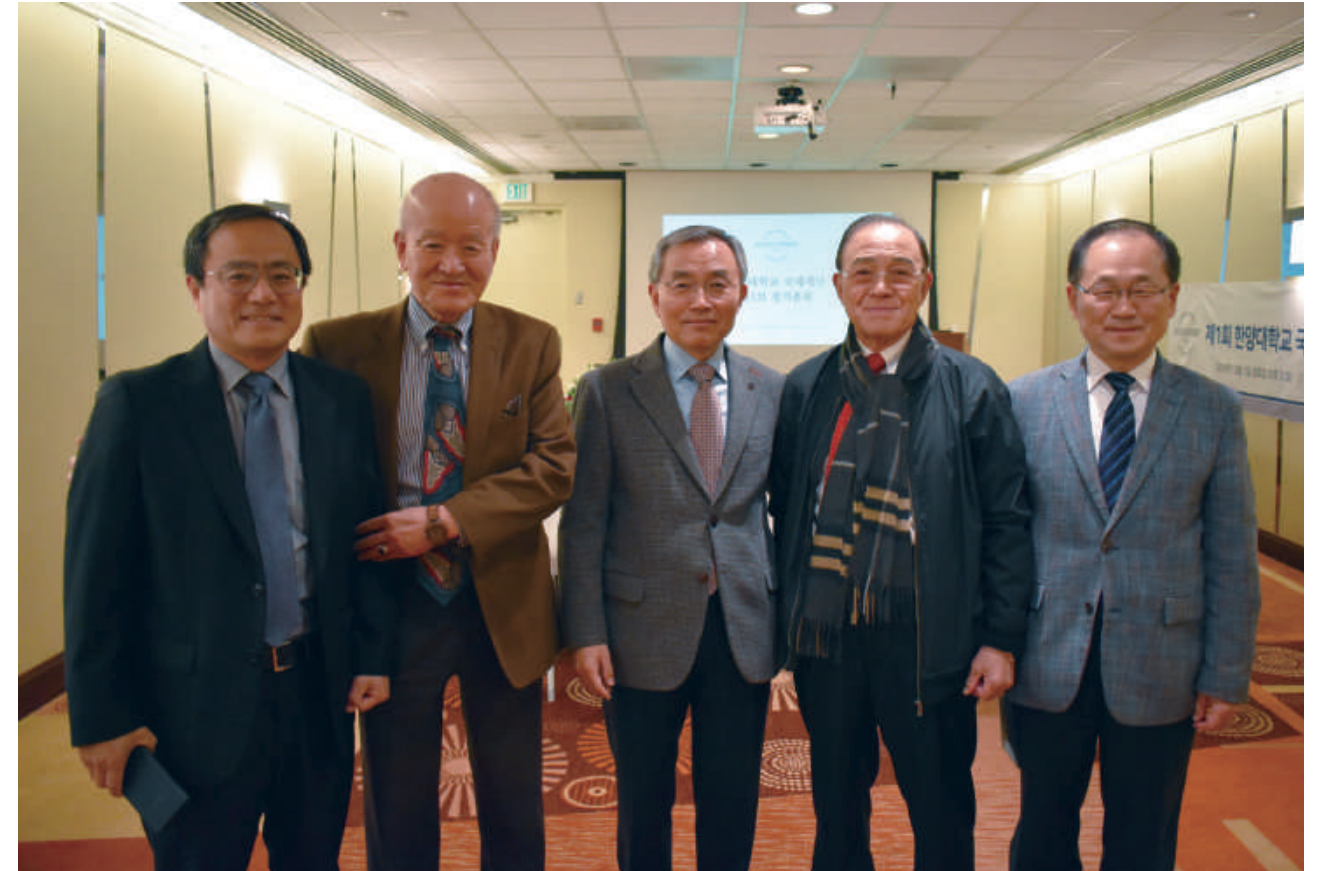
국제재단의 의미

1939년 한양대학교가 설립될 당시는 일제강점기였다. 자유가 없던 그 시절에 사랑의 실천이라는 건학이념으로 대학이 생기고, 우리나라와 민족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에 힘쓴 한양대학교는 분명 80년 역사의 명문 사립대학이다. 공과대학에서 종합대학으로 성장하고 “사랑의 실천자”를 길러내는 그 역사 속에서, 앞으로 더 눈부시게 빛날 한양의 미래를 그려본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어려운 교육의 자리에서 애쓰고 있는 모교의 교수진과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후배들은 여전히 한양의 비전으로 꿈꾸고 있다.

‘한양’이라는 이름은 저마다 다르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열정과 세상을 바꾸겠다는 패기로 꿈을 꾸었던 학창 시절 그 캠퍼스에 대한 추억에는 순수했던 나, 함께 했던 선후배와 동기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국제재단이 인생을 앞서 산 한양의 선배들을 위한 ‘청춘의 기억,’ ‘청춘의 힘’이 될 수 있길 바라본다.

Hanyang University International Foundation is an IRS registered nonprofit organization of the US. The donations are recognized as tax exempt under the Section 501(c)(3)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IRC), and eligible for income tax deduction. We will mail you with the statement of contributions.

IRS 규정에 따라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 공제를 위한 기부 내역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제1회 국제재단 정기총회에 참여했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

굴하지 않는 용기

주저하지 말고 끝까지 해내라

황규빈 동문 (북가주, 원자력공학과 58)

최초의 나스닥 상장 한국 기업인,
조시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기술 고문 ...
황규빈 동문에게는 이처럼 화려한 수식어가 붙는다.
굴하지 않는 용기로 도전하며, 한양인다운 비전을 품고
끝까지 해낸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청춘의 열정이 가득한 인생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서버 기반 네트워크 시스템을 실리콘 밸리에서 한국인이 최초로 구현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또한 공항이나 호텔 등에서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스마트 터미널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보급한 사람도 바로 그 같은 사람이다. 약 50년 전인 1980년대 황규빈 회장은 세계 최초로 개인용 컴퓨터(PC) 네트워크 시스템과 게임용 모니터, 스마트 터미널을 개발하여, 이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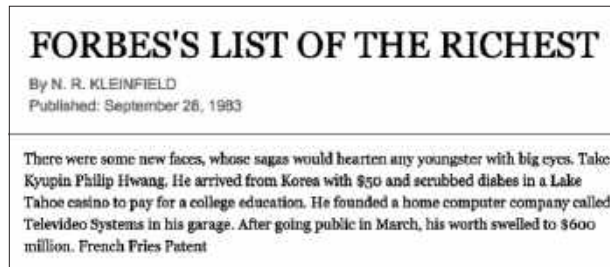
그가 설립한 텔레비디오는 한국계 기업 최초로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기도 했다. 그가 이룬 성과와 수식어만 보면 그의 파란만장하고 패기 넘치는 인생을 상상할 수 없다. 빈손의 이민자에서, 잘 나가는 기업의 회장으로, 또 지금은 자선단체를 꾸려나가는 황 회

장의 모습은 과연 한양인다운 비전을 품고 행동하는 실천자의 인생이라 할 수 있다.

Garage Entrepreneur: 성공 뒤에는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난 황규빈 회장은 한국전쟁 1.4 후퇴 때 단신으로 월남했다. 이후 미군부대 심부름꾼, 명동에서 구두닦이로 힘겹게 살면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미군기지 내에 있던 도서관에서 전기 관련 책도 읽고 영어 성경을 스승 삼아 무작정 영어 공부에 매진했다. 그렇게 그는 58년 한양대 공대에 입학했다. 그 후, 카투사로 복무 중에 미군 병사의 도움으로 미국 유타 주립대 전자공학과에 지원하게 되었고, 당당히 합격했다. 1964년 유학길에 오른 황 회장은 등록금을 내고 남은 돈 50불을 가지고 미국 생활을 시작했다.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하며 전기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인텔의 마이크로프로세서 연구 과정에 참여하고, 포드자동차, 제너럴 인스투먼트 연구원으로 일하며 그는 컴퓨터의 핵심인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

1970년대 황 회장은 직업도 사업할 자금도 없는 빈손의 실업자였다. 주변에서 어렵게 얻은 사업 자금 \$9,000로 1975년 그는 자신의 집 차고에서 텔레비디오를 창업했다. 1970년대에는 게임용 모니터를 주로 판매했다. 첫 번째 성공작인 게임기용 모니터는 당시 모토롤라가 독점하고 있는 게임기용 모니터 시장에서 더 싸고 더 뛰어난 성능으로 인정받았다. 그의 두 번째 히트작은 지금도 널리 사용되는 스마트 터미널이다. 79년도에 세계 처음으로 선보인 이 제품은 81년에는 세계 시장 1위 브랜드가 되었다. 그의 개발 본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82년에는 또 한번 세계 최초로 PC 네트워크 시스템을 개발했다. 개인용 컴퓨터(PC)를 연결하여 서로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방식은 당시 엄청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창업한 지 8년째 되는 1983년도에는 한국



포브스('83)에 실린 황 회장 기사

계 기업 최초로 나스닥에 상장했다. 황 회장은 83년도 포브스(Forbes) 부호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그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창업자 빌 게이츠 사이에 재미있는 일화도 있다. 젊은 시절 빌 게이츠는 텔레비디오 컴퓨터에 MS-DOS를 탑재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텔레비디오 회사 로비에 앉아 오랜 시간을 기다린 후에 황 회장을 만날 수 있었다. 그 결과 83년 4월에 MS-DOS 2.0이 탑재된 컴퓨터가 시장에 나왔다. 그렇게 인연을 맺게 된 빌 게이츠와는 종종 연락하며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1세대 성공 신화의 주역, 재미 사업가 황규빈

CEO로 활동하면서 그의 경영 철학은 한마디로 “How to Survive”, 생존본능이었다. 그가 2004년에 출판한 자서전 제목처럼 ‘버티지 못할 시련은 없다’라고 말하는 재미 사업가 황규빈 회장은 지금 기술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1981년 5월 18일 포천(Fortune)은 4쪽에 걸쳐 황규빈 텔레비디오 회장을 소개하면서 ‘모든 미국인의 성공 스토리, 황규빈(The All-American Success Story of K. P. Hwang)’이란 타이틀을 달았다. 82년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50명에게 수여 되는 AAA 골든플레이크를 수상하고 83년에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첨단기술 분야 기술 고문을 맡기도 했다. 또 86년에는 자유의 여신상 건립 100주년을 기념 해 뽑은 33명의 아메리칸 드림에 권투선수 무하마드 알리(아프



부시 전 대통령의 첨단기술 분야 기술 고문으로 있을 당시 부시 대통령 내외와 함께 한 모습.

리카 미국인 대표) 등과 함께 선정되고, 미 의회에서 100년에 한 번 성공한 이민자에게 수여 하는 앨리스 아일랜드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08년에는 한국 언론인협회가 주관하는 ‘제8회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에서 세계 IT산업의 성공 신화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국위선양부분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인생의 황혼기, 또 다른 씨앗을 뿌린다

“나는 후손들이 재산을 물려받아 흥청망청 헛세월을 보내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황규빈 회장이 한 말이다. 현재 황 회장의 모든 재산은 부인 황젼마(Gemman Hwang) 씨와 함께 설립한 기부 재단에 등록되어 있다. 그는 자식들에게는 이미 충분히 주었고, 본인들도 유산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지금도 수입 중 얼마는 항상 재단을 키우는데 투자한다고 했다. 그 이유는 사후에라도 재단을 없애지 못하게 해 사회에 봉사하고 환원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는 자식들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 대신, 자선

재단을 제대로 운영하여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고 있다고 했다.

그는 여전히 꾸준하게 기부 중이다. 캘리포니아, 유타, 미시간, 미네소타, 버지니아 등 미주 각지의 대학교, 교회, 지역 단체에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학교도 잊지 않는다. 그가 사회에서 받은 만큼 모두 사회로 돌려주고 있는 황 회장은 분명 그와 같은 또 다른 씨앗을 뿌리고 있음이 분명하다.

모교의 후배를 위한 투자

한양대학교에서는 지난 2017년 8월, 위워크(WeWork)에 한양 글로벌 스타트업 랩(Global Startup Lab)





황규빈(왼쪽)과 김우승 한양대 총장이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전자관 설립을 위한 200만 달러 기부 약정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무실을 개소했다. 실리콘밸리 현지의 멘토단이 후배 창업자들에게 자신의 성공·실패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글로벌 창업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해서다. 그리고 한양대 동문 30명을 멘토 위원으로 위촉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멘토단 발족식을 했다. 황규빈 회장도 멘토 중 한 명으로 참석했다. 황 회장은 강연을 다닐 때마다 젊은이들에게 지금까지 발로 뛰고 피부로 느끼고 배우고 경험했던 노하우와 메시지를 전한다. 단돈 50달러 들고 건너온 미국에서 억만장자가 된 그의 성공 요체는 ‘도전’ 그리고 ‘I had a dream, I catch the dream’이다. 누구나 다 어려운 시기를 거치기 마련이지만, 꿈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었고, 결국엔 성취했다는 것이다. 황 회장은 작년 11월 30일 전자관 건립 기금 20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전자 분야에 한평생 종사한 그는 이번 기부를 통해 새롭게 건립되는 전자관에서 모교의 후배들이 어려움 없이 공부에만 전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아이디어가 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해내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며 한양의 인재로 성장할 후배들을 기대하는 마음이 크다고 했다. (이 글은 황규빈 회장의 미디어 인터뷰를 토대로 재구성하였습니다.)

.....
방방특특 인터뷰에 참여해주실 동문님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한양인으로 나누고 싶으신 스토리가 있다면, 주변에 추천해줄 만하신 분이 계신다면 미주 어디에서든 연락해 주세요.

끝없는 도전과 열정의 한양인

새로운 글로벌시대의 주인공이 되다

노상일 동문 (남가주, 보험경영학과 89)

한양대 최고의 교수진과 함께하는

Global CEO 과정에서는 경영·경제전문가 교수진을 멘토로 삼아 최신 경영지식을 배운다.

또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경영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 무엇보다 강의를 들으며 현재 사업체를 재점검하고, 동문들의 협력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신 경영기법 배우고 네트워크 만드는데 최고”
한양대학교 GCEO 동문회

미주 한인 일보에 실린 제목 그대로이다. ‘한양대 최고 경영자 과정’하면, 이미 여기 남가주에서는 교수진으로 보나 상호 네트워크로 보나 거의 지역 최고 수준이다. 한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위상을 떨치고 있는 한양대의 공대, 경영대, 인문대 교수진이 이곳까지 날아와 4주간 열정적인 강의를 펼친다. 그 동안 참여했던 GCEO 동문들의 이야기는 한결같다. 한양대 GCEO 과정은 벌써 7기의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130여 명의 새로운 선배, 동기, 후배가 생겼다. GCEO 과정 역시 한양의 건학 이념인 ‘사랑의 실천’을 따라 사랑으로 완성되는 교육을 목표로 한다. 근면, 정직, 겸손하며 이웃에게 봉사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땀 흘려 노력하는 한인 기업인들에게 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노상일 총회장



노상일 동문(보험경영학과 89), 한양 Global CEO 총동문회장

(보험경영학과 89)은 “동문회를 통해 비즈니스 확장, 신규 업종 진출 등의 기회를 잡은 사례도 많다”라며 “GCEO 프로그램은 최신 경영 기업을 배우며 자연스럽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자연스럽게 친목을 다질 수 있어 인기”라고 말했다.

한양대 GCEO 과정

“한양대학교 최고 경영자 과정”이라는 타이틀만 들으면 과연 나도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노상일 총회장은 “한인 사업가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정과 노력을 바친 분들이다. 우리 민족 특유의 근면, 성실함과 한곳만을 바라보는 투지로 오늘이 자리에 이르렀다.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지속적인 배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한양대학교 Global CEO 과정을 소개해 주세요.
 한양대학교 GCEO는 다양한 경영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업에서의 적용을 지원하여 혁신적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한양대학교의 비전이 아올려진 최고경영자 과정입니다.

어떤 분들이 참여할 수 있나요?
 기업 및 기관 대표 또는 임원, 전문직 종사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은 미국 어디에서든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GCEO 과정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한양대의 뛰어난 교수님들이 직접 오셔서 새로운 도전을 주시고, 또 그 배움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에 늘 도전하며 지속적인 배움의 자세를 갖고 계신 여러분들의 갈망 채워드리고자, 최신 경영트렌드 및 자기 혁신, 국제경영의 새로운 시각,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한 접목 등 다양한 콘텐츠를 최고의 강사진이 4주

동안 집약해 혼과 열을 다해 강의하십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것처럼 비즈니스 관계 형성입니다. 지난 1월 23일에는 OC한인상공회의소와 우리 GCEO 동문회가 공동 주최한 비즈니스 믹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상의이사, 한양대 글로벌CEO 동문을 비롯해 KOTRA, 옥타 관계자 등 60여명은 비즈니스 명함을 나누는 만남의 장을 열었었죠. 실전에서 배우고, 교육으로 보충하고, 만남까지 이어지는 완벽한 코스입니다.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한 한마디!
 최고의 교수진으로부터 배우고, 수강생들과 의견을 나누며, 다른 사업 분야의 선배들로부터 경험담을 들으며 친분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또 CEO 동문 선배들도 최고 경영자 과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후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양 Global CEO 과정에 함께하신다면, 열정을 성과로 승화시키는 CEO로 거듭날 것을 확신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도전하세요!

한양의 한 가족이 되는 GCEO 동문만의 혜택



한양대 GCEO 과정의 장점



최신 경영지식과 정보

세계 경제 트렌드, 기업 경영의 신 조류, 강소 기업 성장전략, 소통과 나눔의 경영, 인문학적 소양과 감성의 리더 교육



네트워크 경쟁력

33만 한양대학교 동문회 및 1,500여명의 전세계 한양 Global CEO 총동문회의 일원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자기 변화와 확신

다양한 분야로의 시야 확대, 지식 습득을 통한 자기혁신 및 평생학습의 기회 마련



소통과 나눔의 실천

문화, 역사, 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리더십 형성과 국가와 사회에 대한 봉사, 이웃에 대한 나눔을 실천

문의: info@hanyanggceo.com · <https://hanyanggceo.com>

조직 구성

동문
33만명



2019년 7월 기준 동문
총 **329,110명**



재학생 (2019/4/1)
33,148명

서울 대학
16,142명
ERICA 대학
9,023명

서울 대학원
6,760명
ERICA 대학원
1,223명

교직원 (2019/4/1)
5,016명



서울 교원
3,023명
ERICA 교원
1,147명

서울 직원
589명
ERICA 직원
245명

국제 교류 현황

학위과정 외국인 학생수 (국제처 2019년 누적 현황) **3,188명**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일본	몽골	미국	기타
2,684명	66명	61명	57명	37명	26명	24명	233명

초청교환학생
1,298명

서울
1,113명
ERICA
185명

파견학생
699명

미국
119명
프랑스
71명
중국
68명

협약 기관
837개 기관(대학)

한국어과정 외국인 학생
3,198명



국내 · 외 위상



QS 세계대학평가 (2020)
150위/세계 1,000개 대학

QS 아시아대학평가 (2020)
24위

세계 대학 순위

QS* 주요 학문 분야별 순위 (2019)

공학 79위	사회과학/경영학 118위	
자연과학 146위	예술/인문학 177위	생활과학/의학 305위

*영국 글로벌 대학 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 4개 지 (학술적 명성, 졸업생 평판도, 논문 당 인용도, H-index)로 평가함.

국내 대학 순위



중앙일보 대학평가 (2019)
서울 **3위**
ERICA **10위**

한양대 취업률 (2020)
국내 주요 대학 **2위**

대학교 브랜드평판 (2020)
전국 **2위**

국가고객만족지수 (2019)
사립대 부문 **4위**

한국경제 창업 · 취업 대학평가 (2019)

서울 **1위**
ERICA **14위**

한국경제 이공계대학평가 (2019)
종합 **2위**

동아일보 청년드림대학 4회 연속
최우수 선정

대한민국 사회책임지수 (2019)
사립대학 **1위**

한양을 키우는 명예, 미래를 만드는 자부심

한양이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힘이 됩니다

한양을 아끼고 사랑해 주신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캠퍼스 곳곳의 교육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학생 친화적인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학습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양은 명석한 두뇌와 따뜻한 가슴을 가진 인재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최고의 대학이 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바이오메디컬센터 신축기금

글로벌 트렌드인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대외경쟁력 확보는
본교 의과대학의 재도약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바이오메디컬 센터 신축을 통한 연구 인력 및 시설 통합,
아이디어와 전문기술 교류 활성화로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선도대학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



기계공학부 기계관 신축 기금

교내에 분산되어 있는 기계공학부의 교육 및 연구
시설들을 신축되는 기계관에 통합 배치하여 국내 기
계공학 분야 TOP3 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
니다. 기계공학부가 다시 한번 한양대학교의 대표
학부, 한양 기계인들의 프라이드로 재도약합니다.





융합전자공학부 전자관 신축 기금

융합전자공학부는 전자 계열 대기업 임원 배출1위, 중견/중소, 벤처 기업인 배출 1위 등 국내 최고의 전자계열 공학 인재를 양성해 왔습니다. 최첨단 시설을 갖춘 전자관 신축을 통해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자 산업을 선도해 가겠습니다.



제3음악관

음악대학은 균형 잡힌 실기와 이론 교육을 통해 전문적 예술성과 인경, 지식을 고루 갖춘 음악가 및 음악 교육자를 양성해 왔습니다. 음악대학의 숙원사업이었던 제3음악관 신축을 통해 대형 실기 강의실을 확충하여 재학생들의 실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간호학부 미래교육관 신축기금

간호학부 미래교육관은 소수 정예의 미래형 헬스케어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공간입니다.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한 최첨단 간호 교육을 위해 임상술기센터, 시뮬레이션실, 스마트러닝센터 등 맞춤형 교육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제재단 운영기금

한양대학교 국제재단은 모교와 후배, 미국에 계시는 동문회와 동문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할 때'에 '필요한 곳'에 투자할 수 있는 운영자금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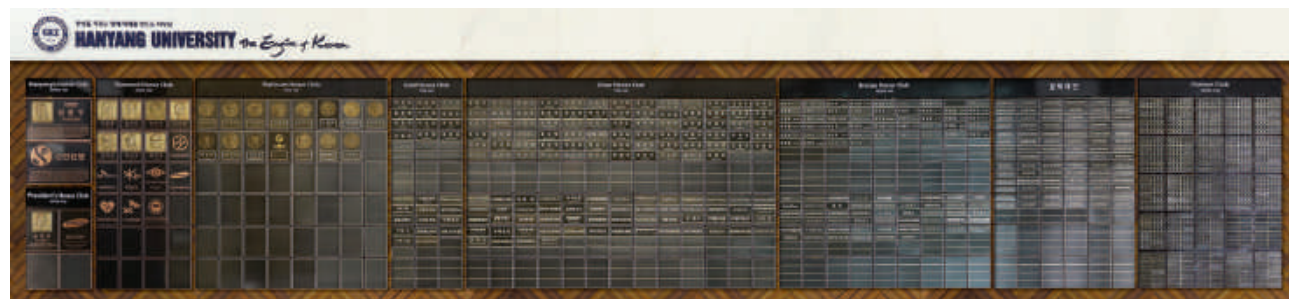
세상을 바꾸는 사랑의 실천

눈부시게 성장하는 모교와 후배를 위해 세상을 바꾸는 사랑의 실천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바꾸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10 million 이상	\$1 million 이상	\$100,000 이상	\$10,000 이상	\$300 이상
박화영 동문 (약정)	황규빈 동문(약정)	정영인 동문	김경숙 동문 김영기 동문 남명옥 동문 노상일 동문 민경완 동문 민혜경 동문 이종혁 동문	장석진 동문 양우엽 동문 윤은석 동문
The Paiknam Award	The President's Award	The Leaderboard Award	The Appreciation of Support	Hanyang Supporters

THE BEST *for a*
BETTER WORLD

Hanyang University International Foundation is an IRS registered nonprofit organization of the US. The donations are recognized as tax exempt under the Section 501(c)(3)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IRC), and eligible for income tax deduction.



한양대학교와 후배들을 위한 투자

한양을 빛낼 동문의 힘!

모교를 향한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모아주십시오. 작은 성의가 모여 누군가에는 큰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모교에 대한 자부심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한양대학교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01 수표로 기부

Payable to:
Hanyang University
International Foundation으로
수표를 작성하신 후,
재단 본부로 보내주세요.

02 신용카드로 기부

재단으로 신용카드 정보를
보내주시거나
전화로 알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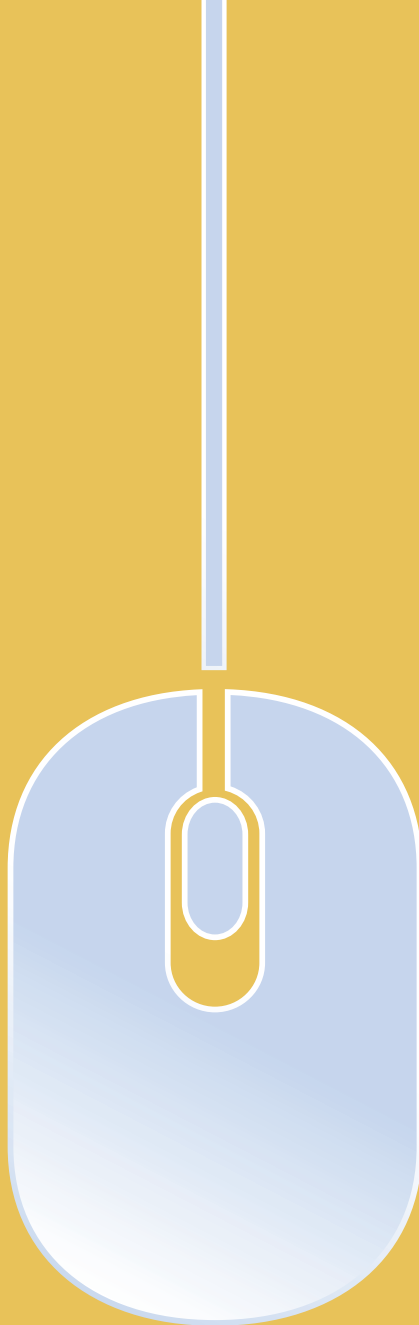
03 계좌 송금

[은행 정보]
이름 California Bank & Trust
주소 400 20th Street, Oakland
CA USA 94612
전화번호 (510) 419-1800

[수취인 정보]
이름 Hanyang University
International Foundation
주소 369 13th Street,
Oakland CA USA 94612
계좌번호 5796205796
Routing 번호 121002042
SWIFT 코드 ZFNBUS55

정기후원으로
나눔을 실천하세요





Connect with us



“한양대학교 국제재단” 검색



[instagram.com/hanyangufoundation/](https://www.instagram.com/hanyangufoundation/)



[facebook.com/hanyangufoundation/](https://www.facebook.com/hanyangufoundation/)



“한양대학교 국제재단” 검색